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서 여름향기 느껴보세요”

야영장 시설 등 정비... 손님맞이 준비 완료 다양한 숲 체험·캠핑 등 산림휴양지 ‘각광’

보성군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손님맞이에 분주하다. 보성군은 지난 28일 휴양림 야영장 전기 공사를 비롯한 사후 시설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 재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놀이숲’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과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숲을 가장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야영시설(51개면)도 운영하고 있다. 자연을 그대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은 △소나무숲 야영장(29면), △물소리 숲 야영장(20면), △하이테크 야영장(2면)으로 운영된다. 이용요금은 데크 크기에 따라 2만 원부터 3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각 야영장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 함께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선택하면 된다. 소나무 숲 야영장은 높이 솟은 나무 그림으로 개방감을 느낄 수 있고, 편의시설 이용이 용

이한 편이라 가족 단위 캠핑객에게 인기가 많다.

물소리 숲 야영장은 계곡과 가까워 물소리, 바람 소리, 새소리 등을 들으며 더 깊이 있게 자연과 소통하고 조용한 캠핑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은 야영 시설 이외에도 160ha 규모의 우거진 산림 안에 48개의 숙박시설과 숲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보행약자도 무모차나 휠체어를 타고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데크길은 제암산휴양림의 최대 자랑이다.

특히, 숲 해설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층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자연 속에서 숲을 찾고, 생태를 이해하는 기회로 삼는 산림휴양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유아숲 체험은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과 교육을 접목한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예약이 마감되는 프로그램이다.



숲에서 즐기는 액티비티로는 △곰 썰매, △전동휠, △어드벤처, △झ라인 등이 있다. 곰썰매는 출발지 높이 15m, 총 길이 238m 규모로 썰매를 타고 내려가며 자연을 느끼며 높은 곳에서 호수를 조망할 수 있어 많은 체험객이 찾고 있다. 특히, 4~5세의 아이들도 부모님과 동반 탑승이 가능해 가족 여행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이용일 3일 전 까지 가능하며 곰썰매만 당일 현

장 상황을 고려 후 개인 고객에 한하여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시설 운영이 중단될 수 있으니 매표소 안내(☎061-850-8708)를 통해 운영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격 성수기 휴가 시즌이 가까워짐에 따라 불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제암산자연휴양림이 최고로 사랑받는 산림휴양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정국도 기자

해남 ‘탄소저감 ESG 도시숲’ 4개소 조성 학교숲 2개소 등 특색있는 생활속 숲 조성 ‘호응’

해남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저감 ESG 친환경 도시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완료된 도시숲은 학교숲 2개소, 마을숲 1개소 등 총 4개소에 수목 4500여주와 녹색 휴게공간을 조성해 학생과 주민들에게 자연학습공간과 생태감수성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학교숲은 학교내 공간을 활용한 숲 조성을 통한 학생들의 친환경적 태도 육성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에게 녹색 휴게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산이서초등학교와 두륜중학교에 총사업비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숲을 조성했으며, 학생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수종의 수목을 식재했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등하굣길 도로변에 숲을 조성해 안전하고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옥천초등학교 후문에 통학로를 개설하여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였으며, 기존 담장을 철거하고 아베나루 등 교·관목을 식재해 친환경 그린숲을 조성했다.

화원장수 마을숲은 팽나무 군락지에 주민·단체가 참여해 숲을 조성했다. 대나무 벌목 및 성토작업 후 굴속 등 교목 8종 157주와 관목 영산홍 등 4종, 976주를 식재하고 황도포장을 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기존 팽나무와 해안선 등 주변 경관과 어울어진 풍치 숲을 조성을 완료했다.

/해남·김동주 기자

순천 소상공인 고충민원 상담 진행

오늘 아랫장 상인회교육장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

순천시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아랫장 상인회 교육장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지역 주민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현장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번 순천 달리는 국민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각 분야 전문조사관과 협업기관 상담관 등 13명이 상담을 진행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및 소

상공인 뿐 아니라 산업·환경·농림 분야 등 다양한 고충 민원 상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민원 해결이 어려웠거나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고충민원을 이번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아랫장번영회와 함께 소상공인의 고충해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광양매일시장, 특가판매행사 경품 추첨 등 경쟁력 확보 나서

광양시는 지난 28일 유동 환경의 변화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장 이용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광양매일시장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해 손님맞이에 나섰다.

광양매일시장 상인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노래자랑, 특가 판매, 경품 추첨 등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됐으며, 행사를 통해 광양시를 대표하는 농·수산물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향후 대형마트와 맞설 경쟁력과 단골 확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양매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전 단계인 문화재 발굴을 마무리하고 내년 7월까지 시설현대화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력형 광양매일시장상인회장은 “행사 준비 과정에서 시장 상인들이 고객의 발길을 모으기 위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시했다”면서 “앞으로 광양매일시장은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새롭게 단장하고 이용객에게 쾌적하고 정갈한 쇼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시민이 전통시장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양시는 6월 27일~7월 26일 중마시장 내에서 특가판매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광양·조순익 기자

나주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올해 첫 지급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한 실제 경영주 대상... 한달간 신청 접수

나주시는 올해 첫 시행하는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서를 7월 한 달간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임업·산림의 공익 위한 증진과 임업인의 소득 보전을 위한 제도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6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직불금은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소규모 임가 직불금·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 등으로 나뉘어 차등 지급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산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분뇨 배출을 제한 등이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지급한다.

특히 농업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규모 농가직불금을 수령할 경우 다음해 임업직불금 중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업직불금 신청 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직불금 신청은 등록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누리집 또는 임업경영체 업무지원 포털 사이트 ‘임업-in’(www.foco.go.kr) 사업 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산림청 임업직불제 긴급대응반(1588-3249)에서도 전화 상담을 한다.

/나주·서철훈 기자

신안 증도에 ‘미세먼지차단 숲’ 준공



신안군은 지난 24일 향기의 섬 증도에서 남성현 산림청장,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차단 숲 준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신안군은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사업이 확정된 2021년 하반기부터 식재기반을 조성하고, 올해 초 식재공사에 착공해 상반기 중에 준공했다.

슬로시티 증도가 미세먼지차단 숲 조성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황사, 미세먼지 등 걱정없는 청정한 섬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이 사업은 국비 2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0억원으로 총 면적 15ha, 길이 8.5km에 이르는 미세먼지차단 숲을 증도면에 조성하였다.

식재수종은 미세먼지 흡착 능력이 높은 대산목과 금목서, 은목서, 돈나무 등 향기의 섬 증도에 적합한 수종으로 9만8700주를 식재했다.

미세먼지차단 숲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상쾌한 공기를 제공하는 등 대기질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으며 또한 녹색 휴식 공간과 산책로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심리적 안정을 주고 정서 함양에도 도움을 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세먼지차단 숲과 정원 등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숲이 울창하고 꽃이 만발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 신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박정래 기자

함평 ‘농가고통 분담’ 쌀값 폭락 판매촉진 운동 전개

‘함평천지물’ 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

함평군이 쌀값 폭락으로 시름에 빠진 농민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다.

함평군은 28일 “경기침체 및 소비둔화로 2021년산 쌀 가격 하락이 장기간 될 것으로 보고 공직자, 농협 및 각급기관·단체 임직원, 향우회원 등을 대상으로 함평쌀 판매촉진 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매는 함평군 농특산물 소평

물 ‘함평천지물’을 통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4개월간 진행된다.

단체구매 및 대규모 공급처의 경우 함평군 친환경농산물과 농산물판매촉진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하다.

새창무 단일 품종미인 ‘우렁새시미’와 ‘신동진미’는 10kg 2만6000원, 20kg 4만8000원에 할인판매되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함평나비쌀’은 10kg 3만7000

원, 20kg 7만원에 판매된다. 20포(20kg 기준) 이상 구매하거나 대량 구매처를 확보한 직원을 대상으로 현물 포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함평천지물’ 구매 고객에게는 신규 가입자 5000원 쿠폰 및 구매 금액의 5%를 적립하는 이벤트 등도 마련돼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판매촉진 운동을 통해 쌀값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겠다”며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함평·김정희 기자

순천시,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순천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의한 옥외광고물 탈락 등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불발·노후·위험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점검한다.

이번 일제 정비·점검은 노후 등으로 탈락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옥외광고물과 불법 유동광고물이 대상이며, 관내 주요 진입로, 공공장소, 인구 밀집 지역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중대한 위험요인은 현장조치하고 소유주에게 자진 철거 또는 안전장치 보강 등 대책 마련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일제정비·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읍면지역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도 광고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여름철 노후 옥외광고물 등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 소유자는 광고물 안전관리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강진 명품 쌀, 수출 판로 확대 발 벗고 나섰다

말레이시아 와와사니타 초청 수출길 방안 모색



강진군이 강진산 고품질 쌀 수출 판로 확대에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9일 강진군농협통합RPC대표 채희진이 강진원 강진군수 당선인과 (사)한말경제문화교류협회(이사장 이정식), 말레이시아 와와사니타대표 다린톨리를 초청해 강진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품질 쌀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실무협의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회의 후 군 대표 미곡

종합처리장인 강진군농협통합RPC의 쌀 건조·가공공장 및 자동화 시설을 견학하고, RPC에서 생산되는 새창무쌀과, 프리미엄 호평 등 우수 제품을 살펴봤다.

강진군은 코로나19 불황 속에도 새창무쌀 약 90톤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한 바 있어, 샘플 쌀에 대한 수요 및 반응을 후 하반기 수출 및 상품교역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답변 등 수출 활성화 논의에서 상

호 긍정적인 협의를 이어갔다.

(사)한·말경제문화교류협회는 외교부에서 정식 인가한 첫 번째 민간 교류단체로 한국-말레이시아 양국간 상품교역 및 문화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와와사니타와 교류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와와사니타는 1996년에 설립됐으며 여성무슬림기업인들로 구성된 NGO(비정부기구)이다. 말레이시아 전역에 약 540여 개의 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기업연합체로 알려져 있다.

강진원 당선인은 “이번 말레이시아 수출 협회가 강진쌀 판로확대와 국제적 경쟁력 제고 및 소비기반 확보, 판매 활성화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발굴해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와 강진산 농산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한홍수 기자

화순 ‘귀농인 소득 안정화 사업’ 지원

2022년 귀농인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 28개소 모집

화순군이 귀농인 소득 안정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농작물 재배 경험 부족, 제한적인 재배 작목에 따른 소득증대와 다양화에 어려움을 겪는 귀농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농인의 작물 재배 경험, 전문성 제고, 재배 작목 다양화, 수확량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규모 작물 재배에 필요한 종자(묘)를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농촌 외 도시지역 1년 이상 거주하고 화순군으로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귀농인이며,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과 귀농 관련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팀(061-379-5441~4)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주영현 기자